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청년세대를 위한 공천제도 혁신
[발제자]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
[지정토론자]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일 시] 2019년 9월 5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320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2030 젊은 유권자들의 비율은 약 35%로 전체 유권자 중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인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사고하고 생활하는 패턴으로 완전히 변화했다. 2030 세대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국경의 경계, 시·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그 자유를 갈망하는 세대다. 이들은 감성, 소통, 이동, 융합의 세대이며 스마트폰의 유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사고체계가 유연화 되어있다. 그만

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과 역량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강화되었다. 기성세대의 권위주의나 위계질서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애가 되고 있다. 세대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젊은이들의 첫 정치관문인 정당공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기성세대가 밀레니엄 세대, 디지털 세대로 대표되는 2030의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 당내 공천의 혁신을 위해 2019년 1월 시행했던 오디션 사례를 중심으로 SWOT 분석을 통해 3가지 전략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특정 이슈와 쟁점에 대한 표면적 평가가 아닌 깊이 있는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지역구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별 평가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 개인의 삶의 스토리와 어필할 수 있는 개인적 매력을 드러낼 충분한 기회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

■ 공정성과 흥행성을 위해 ‘입체적 평가 방식을 위한 기준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이념성이다. 이념이 옳고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이나 실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는 국가관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향후 미래국가의 방향성을 포괄하는 국가관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에서의 거시적인 흐름과 주요 사건들에 대해 인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 상식적 능력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 넷째는 지역구 전문성으로 개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소통력으로 정치인으로서 대중을 설득하고 자신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전달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지정자 토론) 청년들이 현 공천제도 아래에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3가지다. 하나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가산점제도, 셋째는 우선추천제도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안들 모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제도 내에서 보완할 방법으로는 비례대표를 청년이나 정치신인에 중점을 두는 것, 가산점 제도를 정치 신인,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부여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후보가 해당 지역구를 파악하고 선거운동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우선추천지역을 되도록 빨리 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신인, 청년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시스템 구축노력 등 혁신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 패러다임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특성

- ◆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2030 젊은 유권자들의 비율은 약 35%로 전체 유권자 중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정치참여와 유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수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로부터 경험과 경륜, 국가관과 이념을 전수받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 차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패러다임을 거치며 자라왔기 때문이다. 차세

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배경에는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인류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사고하고 생활하는 패턴이 완전히 변화했다. SMART NEO-HUMANISM 즉, 이전과 완전히 다른 뇌 구조의 변화를 겪은 ‘신인류’의 등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 이 세대는 아날로그에서 완전한 디지털로의 전환을 경험한 세대이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국경의 경계, 시·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훨씬 자유롭다. 기성세대보다 사고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구속을 싫어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세대다. 이들은 감성, 소통, 이동, 융합의 세대이며 다원성의 전성기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기성세대와 달리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풍요의 세대의 특징은 생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은 없지만 많은 문화를 누리게 되면서 비교할 대상이 더 많아졌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향유하는 문화의 폭이 넓은 만큼 젊은 세대의 가치와 관심은 사회 여러 분야에 분파적이고 다양하게 퍼져있다.
- ◆ 이 세대들은 스마트폰의 유입과 함께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체계가 유연화 되어있고 그만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과 역량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되고 강화되었다. 현실은 세대간 갭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권위주의나 위계질서를 불편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과 젊은 세대가 불안하게 보이는 기성세대 사이에는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대화가 부재한 상황이다. 젊은 세대는 일방적 훈수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젊음을 평가 절하하는 문화에 실망감을 느낀다. 보수에는 차세대와의 의사소통과 젊은 세대를 위한 인센티브나 동기부여가 비교적 부재하다.

◆ 공천 개혁: 자유한국당의 공개오디션 사례 중심으로

- ◆ 흥행하는 공천을 위해서는 밀레니엄 세대, 디지털 세대로 대표되는 2030의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 당내 공천의 혁신을 위해 2019년 1월 정당사 최초로 오디션 제도를 도입했다.

가. 공개오디션 SWOT 분석

- ◆ S(Strengths) 강점은 새로운 인재를 충원할 기회가 되었다는 점, 트렌드에 맞춘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갖췄다는 점, 또한 이를 통한 대중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 O(Opportunities) 기회의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혁신&새로움의 이미지 선점과 공정한 진행이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의 진행과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반영한 입체적인 평가로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 W(Weaknesses) 약점은 정치권에서의 인재를 선출하는 데 있어 오디션 시스템이 사용된 것은 인기영합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과 오디션 현장에서의 단순 순발력만이 부각되어 평가된다는 점이다.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순발력보다 더 중요한 관련 지식들을 오디션 시스템에서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밖에도 검증 프로세스가 부실했고 지역구의 원론적인 해결을 위한 인재상의 반영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 T(Threats) 위협 요인은 오디션의 특성상 능변적 요소가 중요시되기에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문인재들이 평가절하 되는 현상이 나타난 점과 학습효과로 인한 공정성이 훼손된 점이다. 학습효과라는 것은 첫 경연 당시에는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공정한 투표가 이뤄진 반면 경선방식을 체득한 이후에는 주변 인력동원으로 불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방지장치가 미흡한 점이다.

나. 전략적 보완 과제

- ◆ 첫째, 깊이 있는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정 이슈와 쟁점에 대한 표면적인 평가가 아닌 끝장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국가관, 이념, 사명의식 소명의식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토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 ◆ 둘째, 지역별 평가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지역구에 대한 애정과 이해 관련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셋째, 후보자 개인의 삶의 스토리에 어필할 수 있는 개인적 매력을 드러낼 충분한 기회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 단순 질문에 답하는 형식만으로는 후보자 개인의 삶의 스토리와 정책지식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 공정한 공천 오디션을 위한 5대 제언

- ◆ 공정성과 흥행성을 위한 입체적 평가 방식을 위한 기준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이념성이다. 이념이 옳은지 옳은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실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 특별히 소속한 당의 핵심 이념과 가치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자신이 가진 이념과 지향성에 대한 스토리와 확고한 입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관이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향후 미

래국가의 방향성을 포괄하는 국가관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에서의 거시적인 흐름과 주요 사건들에 대한 인지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 상식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구 전문성으로 개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소통력으로 정치인으로서 대중을 설득하고 자신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전달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 ◆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당인을 배제한 전문인 중심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패널의 경우에는 학습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인을 선발하여 진행하되 이들은 권역을 분류하여 무작위로 투표인을 선발함으로써 처음부터 동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 지정토론자의 토론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 이전까지 공천의 역사는 계파 갈등의 연속이었다. 공천권자의 자의적 기준으로 공천할 수 있었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제도와 규율을 잘 만들고 이에 따라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위원단이 꾸려지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기존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 공천을 준비하는 이들은 당원과 당규에 나오는 공천 제도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 ◆ 청년들이 현 공천제도 아래에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3가지다. 하나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가산점 제도다. 정치신인과 청년층은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들에게 약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우선추천제도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안들이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정치 신인,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 기존의 당원·당규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에 현 제도 내에서 보완할 방법으로는 기존의 가산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정치 신인,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부여 해주어야 한다. 혹은 비례대표 자체를 청년이나 정치신인을 주력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다. 우선추천지역의 경우에도 일찍이 이뤄지도록 하여 후보가 해당 지역구를 파악하고 선거운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신인,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관심과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앞으로 차세대 양성은 지속적인 관심과 시스템 구축 노력 등의 적극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